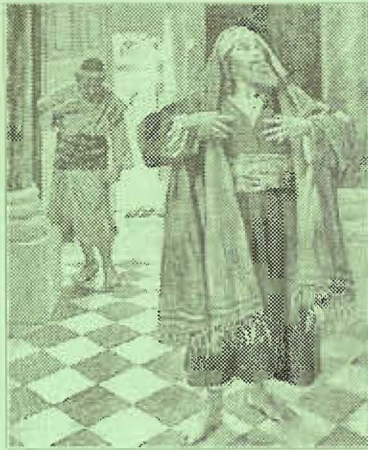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0주일 · 독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제33권 48호(다해) 2013.10.27

[묵상]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떤이를
의인으로
여기시는지
밝히신다.

“오, 하느님! 이 신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해성사때 이런 분이 있다

"누가 내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보면,
결국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이웃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 해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죄를 고백하러 와서 남의 죄만 실컷 늘어놓고 나간다.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회의 눈물을 흘려가며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해 고해사제를 부끄럽게 하는 고해자도 있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느님! 이 신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종호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김한용 & 김재현 모니카 & 신성호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최근석 마리아, 이명자 로사,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타, 전지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종선, 서정식, 민희철 베드로, 김명길, 신임순 안나, 이용식 베드로, 주용범 아브라함, 낙태아와 이름없는 어린영혼들 (생)이윤조 클라라, 강호우 안토니오 & 강소원, 정제민 브랜든,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폴 노스트롬, 김충섭 마틴 & 김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이동협 안드레아, 이남호 사라, 김영언 가누토, 백삼위ME가정, 토런스 서3반 가정, 안나희 온천봉사자들, 오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5,15L-17,20-22L

화답송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 - 셧 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재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돌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깃발린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젖값을 벗으리라.㉠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4,6-8,16-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루카(Luke) 18,9-14

영성제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21	216	193
봉헌	255	267	272
성체	주 품에	284	295
파견	Prince of Peace	321	218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2)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가령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시편 110(109),1] 라는 시편의 표현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에서 형제를 뜻하는 그리스 말 아델포스(α'δελφοί)는 매우 광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촌과 이복형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만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마리아의 자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마태오 복음 14장 3절에서 헤로데의 형제로 불리었던 필리포스는 사실상 이복형제였다. 성 아타나시오 교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사실은 다른 형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면서 성모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셨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신비이며, 하느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의 표징이다. ‘동정’이 지시하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한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한 사실이다. 이처럼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순결한 인간의 신비를 드러낸다.

3)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Pius IX) 교황은 회칙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Ineffabilis Deus)을 통하여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선포하였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셨다”(DS 2803).

물론 성경은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신앙 교의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肉)을 취하시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교부들은 은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리아의 탁월한신앙과 성덕을 인식하였다. 유스티노 성인은 하와의 불순명과 마리아의 순명을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순명과 신앙이 이루어 낸 구원 업적을 인식하였다.

이레네오(Irenaeus) 성인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동반자라고 칭하였는데, 이 표현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조자로 보는 데 출발점이 된다. 7)

‘공동 구속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라틴 말 Corredemptrix는 결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있어서 동렬에 놓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께서 인류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께 협력한 사실을 ‘교회 현장’이 잘 표현하고 있다. <◆계속>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간다.

어느 겨울날 한 추기경님이 로마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기경님은 노인의 모습이 측은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예, 추기경님! 저는 건축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배울 것이 아직도 많은데 저에게 시간이 없네요.”라고 대답을 한 노인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자신만이 최고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발전을 막고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느님과도 관계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원인 중 하나로 ‘교만’을 꼽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거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겸손은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 미약함이 우리의 현실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고통과 힘든 현실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며 남의 이목이나 가치판단 따위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유일한 안내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인내심을 길러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여유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와 공적 죄인으로 멸시당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 두 사람은 비교

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산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일에 하느님의 기도를 달기도 죄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단언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사이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남들의 결점이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합니다. 자신은 다른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교만스런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업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자비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가정들 사이의 연대성을 특히 의미심장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거나 심각한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기꺼이 입양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3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11월2일(토) '위령의 날' 위령미사 봉헌 : 오전 8시30분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 11월 첫토요일인 이날 성모신심미사는 없습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 ◆ 본당 ME 세어링 및 ME제정 사제의 달 기념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7일) 오후 6시 강당
 - 참석대상 : 새로 부임하신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ME 출신의 모든 부부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동호하사바오로 & 병옥 올리아 본당대표부부 ☎(310)780-9055
- ◆ 안나회 효도관광
 - 일시: 10월2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성당도착 오후6시)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회장 ☎(310)738-4387

◆ 11월3일(주일)부터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해제
11월3일(주일) 새벽 2시를 1시로 변경하십시오.
(토요일밤 취침전 시계바늘을 옮겨놓고 주무세요.)
주일아침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도 되는셈입니다.☆

- ◆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pr.) 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주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성당 2층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소운선 요세피나 부단장 ☎(310)630-7373

올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는 본당 '백삼위성당'이 주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협조합니다. 특히 성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연습시간 : 2차(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3차 리허설(11월28일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 광 현장)
- 대상 : 성가대원 및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성가를 연습 해온 모든 교우들
- 문의 : 민원희 안나 지휘자 ☎(310)634-9631

-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 남가주 한인가톨릭 위령의 날 합동 연도 및 미사
 - 일시 : 11월9일(토) 오후 1시15분(연도), 오후 2시(미사)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 본당출발 : 카폴, 낮 12시40분 성당 파킹랏
 - 문의 : 김정웅 요한 연령회장 ☎(310)720-8240

-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7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우거지갈비탕 \$3)
 - * 주일학교(4학년 치킨 케사디아)
 - 11월3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 *주일학교(자모회 핫도그 & 핫초코 또는 주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국세찬	권오상	권진혁	김교복	김병태
	김병학	김영경	김재영	김종문	김주량	김철민
	김충섭	김효진	나경흠	남성철	박기돈	서정진
	송영미	신순철	신철규	심재은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오수인	오신재	육근주	이인석	이현주
	임 순	장영진	장정진	정혜영	조소영	한창주
	합계 : \$5,940					
주일미사 헌금 : \$2,763	2차헌금 : \$764					
성전헌금	강미순	국세찬	권오상	김교복	김병학	김종문
	김주량	김철민	김충섭	김효진	나경흠	남성철
	신순철	심재은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오수인
	이인석	이현주	임 순	장정진	정혜영	한창주
	합계 : \$3,430					
감사헌금 : 이일길						

공지사항

주일학교 소식

중등부 Back to School 학부모 모임

- 일시 : 오늘주일(27일) 오전 10시30분(2층 중등부 교실)
- 대상 : 7학년~8학년 학부모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주임 ☎(310)918-8665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3일(주일) 주일미사후(아침, 학생, 낮미사)
- 장소 : 부엌열 부스와 친교장
- 품목 : 음식판매(4종류 핫도그 & 도넛과 커피), 어린이용품
- 목적 : 백삼의 어린이들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자모회장 ☎(310)782-1025

위령성월 맞아 현장실습, 고등부 묘지 방문

- 일시 : 11월3일(주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오후1시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컬버시티)
- 학부모님들의 차편봉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중등부 Lock-In

- 일시 : 11월8일(금) 오후 6시~9일(토) 낮 12시 분당
- 문의 : 스텔라 남 중등부 주임 ☎(310)918-3324

펀드레이징 행사

- 일시 : 11월10일(주일) 낮미사후 친교장
- 행사내용 : 맛있는 쿠키, 커피, 티 등 디저트 판매
- 목적 : 중고등부 행사용 티셔츠 제작비 지원
- 티켓 : 1장에 \$10(오늘주일27일부터 팔립니다.)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310)613-9116

남가주 소식

남가주 푸르실료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11월2일(토) 오후 3시,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티켓 : \$10(식사포함)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남가주 한인가톨릭 위령의 날 합동 연도 및 미사

- 일시 : 11월9일(토) 오후 1시15분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성 아그네스 성당 제18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1월11일(월), 14일(목)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지도 : 최대제 르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첫강의 후 10회 실습)
- 문의 : 성당 사무실 ☎(323)731-4433

구인

환자(가톨릭신자·여) 돌보실 분을 찾습니다.
출퇴근 또는 숙식 가능. 건강보험 드립니다.

* 연락처 : ☎(310)293-5120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10/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0/12(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1(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레오도시오 780-3258	김중섭 마틴 490-9662 10/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999-5808 10/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617-1132 10/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준 방지겨 968-8280 10/18(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951-4710 10/9(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0/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권병연 리디아 404-1607 10/2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금자 데레사 804-7645 10/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10/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910-9943 10/11(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병록 요셉 818-1799 10/11(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10/8(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부서지고 꺾인 마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나 못된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 질병, 허약한 몸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그런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독해지고 거칠어졌나 봅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게 벌컥 화를 내거나, 불쑥 거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 기억을 말끔히 지우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못난 부분도 이제 저의 일부가 되어 제 안에 자리잡아 버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몹시 어색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욕심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뭘 잘했다고, 뭘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거리를 두었나 봅니다.

매달리고 조를 만큼 가깝지 않다고 여겼나 봅니다. 그저 불쌍한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지었습니다. 제 가슴 안에 계시지도 모르는 하느님을 보아야 하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먼발치에서만 하느님을 바라본 셈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켜져서 고개를 똑바로 들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나의 속마음을 영화 스크린에 비춘다면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용서 프로젝트 설립자 프레드 리스킨 교수는 ‘약점이 있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제게 큰 위안이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19)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이란 강한 어감 때문에 거리감을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수록 인간의 부족함과 그런 부족함을 지닌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인젠가 어느 강론에서 들은 말입니다만, ‘주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말씀도 기억났습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회개한 사람을 더 좋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잘못을 뉘우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또 다시 고개를 떨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부서지고 꺾인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둠의 수렁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의 사랑

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제 영혼이 흠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 주소서.”(시편 119:25)

◆김승월 프란치스코 /

시그니스(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서울회장

기복신앙에 대하여

흔히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구복(救福)신앙, 혹은 복을 빈다고 해서 기복(祈福)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비는 신앙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에도 ‘복’이란 단어가 술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느님은 무엇보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창세24, 1)와 같은 구절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하나만으로도 복을 비는 행위가 신앙의 중심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복을 비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복신앙은 현실 중심적이고, 현세 구복적 신앙입니다. 당장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복을 구합니다. 합격이니 승진이니 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 중심주의적인 기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배후에는 ‘나를 위한 하느님’이라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복음화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아멘